

사랑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리

법정스님의
말씀을
이상현  쓰다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당신은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When
do you
feel
happy?

1,000개의
행복

당신은 미치도록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친구들과 여행 중 잠들 때까지 떠는 수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는 봄비 내리는 어느 주말’
‘가을 산책길 만난 타닥타닥 낙엽 태우는 냄새’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일 때’ 등

‘미치도록 행복한 순간 1,000’의 저자 조근형 씨는 10년 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에게서 하나, 둘 수집한 1,000개의 행복한 순간을 모아 책으로 엮어냈다.

1,000개의 행복은 우리가 경험했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의 기록이다. 사람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처럼 큰 사건만을 행복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유난히 햇살이 투명한 출근길 아침’처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이 순간, 나의 행복 점수는?

최근 3개월 정도 스스로에게 행복의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는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의 미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지금 내가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는가?’가 5년 후, 10년 후 그 사람의 행복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된다”고 말한다.

물론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이 순간 행복을 바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의 순간을 미루게 된다. 회사에 있을 때는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집에 가면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하고 싶듯,

어떤 조건이나 상황으로 자신의 행복을 미루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껴야 한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하는 사람만이 앞으로도 더 행복할 수 있다.

문요한 전문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각을 내려놓고 오감으로 현재의 삶을 보다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자.

그리고 내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이제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더 행복한 소비

지금 무언가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잠시 질문을 던져보자.

‘이 소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옷, 커피, 차, 액세서리,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는 행위가 우리의 행복에 놀랄 정도로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질문이 행복지수를 극대화한다고 한다.

첫째,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돈을 썼는가?

둘째,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이 돈을 썼는가?

셋째, 좋은 시간을 위해 이 돈을 썼는가?

브리티시콜럼비아 대학 심리학과 엘리자베스 던 교수팀은 성인 630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수입과 소비행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수입과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학 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여행 등 경험에 쓴 지출의 행복감이 일반적인 물건 구입보다 오래 지속됐다.

지출 전 만족도는 물건 구입은 4.41점, 경험 구매는 2.9점으로 훨씬 낮았지만 2주 뒤의 만족감은 경험 구매(5.7점)가 물건 구입(4.91점)을 크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쾌락적응(Hedonic Adaption)’을 그 이유로 꼽았다. 좋은 차를 산 후 얻어지는 즐거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지만, 친구와의 유럽 배낭여행 등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당신의 행복지수를 결정한다.

당신은 오늘 어디에 돈을 썼는가?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1월호 vol.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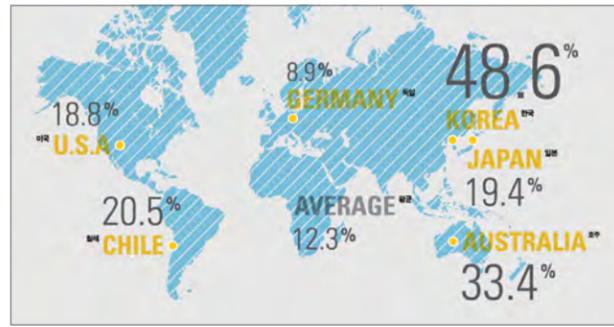
MONTHLY MAGAZINE, JANUARY 2015



10

행복을 주는 사람 | 배우 조은숙

배우 '조은숙'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녀의 세 딸과 나이를 가늠 할 수 없는 아름답고 탄탄한 미모를 화제로 삼곤한다. 그러나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딸도 아닌 온전한 '조은숙'을 만나 '행복'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14

Info-Graphy | 우리나라 노인 빈곤수준

우리나라 고령층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은퇴연령 가구의 빈곤율도 최근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치밀한 미래설계가 필요하다.



24

Do! Dream | 정세균 한수원 부장

우리네 주변의 평범한 이웃 정세균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은 '갠세대'로서의 삶을 걸어왔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은퇴 후 삶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와 함께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풍요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41

시장이슈 |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디플레이 우려 해소될까?

지난해 11월 소비자 물가가 1.0%를 기록하면서 2012년 10월 2.1%를 기록한 이후 25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GDP 디플레이터가 2분기 연속 0.0%를 기록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GREETING



- 08 인사말
행복 knowhow 발간사

INTERVIEW



- 10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길'을 만들어가는 일

INFO GRAPHY



- 14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우리나라 노인 빈곤 수준

행복미래설계



- 16 H씨의 행복설계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로 노후설계 든.든.히.
- 20 지식 플라자
국가 별 해외재산 VS 국가 간 글로벌 공조 고령자를 위한 월급통장, 연금수급통장
- 24 Do! Dream
'자기만의 세계'를 인생 2막의 꿈으로 키우다
- 26 Anti aging
울끈! 불끈! 생활 속 근육 레시피
- 28 Alone, together
혼자 있는 시간, 나를 찾아가는 여행

연금이슈포커스



- 30 연금 포커스
중여·상속에 대한 의식조사와 시사점
올해 은퇴 버킷리스트
최우선 순위 'IRP 가입'

경제 TREND



- 38 경제 이슈
국내외 경제 회고와 2015년 전망
- 41 시장이슈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디플레이 우려 해소될까?
- 44 부동산이슈
5개 키워드로 보는 2015년 부동산 시장

GLOBAL



- 46 지구인 이야기
美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준비 '어떻게'

FUTURE



- 48 은퇴, 버킷리스트
나이 예순에 멋있는 첼로리스트가 되어볼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1월호 vol.01 (통권 1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발행일 2015년 1월 5일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승희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원, 하나은행 | 김한성 팀장, 박용관 팀장, KEB | 김홍균 수석전문역, 조선영 차장, 하나대투증권 | 이영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행복 knowhow 발간사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구 고령화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취약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제적으로 70~80% 수준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못 미치는 50% 수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도 PB 명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차원 높은 노후 미래설계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향후 고객분들이 미래설계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좋은 정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 행복가이드'를 **행복 knowhow** 로 확대·개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복 knowhow** 를 통해 선도적이며 차별화된 미래설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함이 많았던 '하나 행복가이드'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확대·개편하여 발간되는 **행복 knowhow**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 5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희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길'을 만들어가는 일

배우 '조은숙'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녀의 세 딸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아름답고 탄탄한 미모를 화제로 삼곤 한다.

그러나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딸도 아닌 온전한

'조은숙'의 진짜 내면과 만나 대화하고 싶었다.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만나 '행복'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배우 조은숙이 출연한 KBS드라마스페셜 '그 여름의 끝'에 등장하는 잘란루딘 루미의 '여인숙'이라는 시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수용하라는 권유는 큰 울림을 준다. 조은숙은 윤, 혜민, 혜랑 딸 셋을 키우며 엄마이자, 아내, 배우로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행복을 위한 나만의 지렛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강조해요. 자신만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온전히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녀의 행복철학이다.

시련이 닦쳤을 때 늘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요

1996년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데뷔한 조은숙은 영화와 드라마, CF 등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배우로서 살아왔다. 그리고 사업가 박덕균 씨를 만나 2005년 결혼했다.

결혼 9년차, 그녀도 늘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업으로 바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또 2년 터울로 세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며 한 때 72kg까지 몸이 불고, 산후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6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엄마로서, 배우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으며 “마치 내 영혼이 우러날 대로 우러낸 녹차 티백 같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시기를 서서히 극복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종교와 가족의 힘이였다.

“기쁜 일뿐 아니라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신앙을 많이 단련시켰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 마음 속에 꿰어 있던 흠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에요. 힘든 상황이 되면 저는 처음을 떠올려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아무 것도 갖지 못했잖아요? 또 가족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가족이란 힘들 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원점으로 상황을 되돌려놓고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걸음 한걸음이 쌓여 만들어지는 게 '행복'

“전 가끔 생각해요. 어떤 게 행복이지? 어릴 때 제 꿈은 배우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싶었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내 뜻대로만 살았다면 삶이 망가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내 모습에 참 감사하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행복을 점점 키워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과연 스스로가 좋아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 좋아졌는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한다. 다만 지나온 과거를 돌아켜보면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해야지'라고 생각만 해놓고 행동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저는 명품백보다 사실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강남에 땅이라도 사놓을 걸'하는 후회를 가끔 하기는 하지만요(웃음). 다만 좀 더 어렸을 때 장기 복리상품 등에 재테크를 해놓았다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긴 합니다. 또 매 순간 조금만 더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였다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30살 때는 10년 동안의 계획을 꼭 쓰고 실천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않더라구요. 앞으로는 10년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균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잘란루딘 루미의 「여인숙」

행복을 위한 '조은숙'의 버킷리스트

남양주 덕소의 한 카페에서 만난 조은숙은 첫 만남부터 무척 들떠보였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평소 그녀가 꿈꿔왔던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한 날이기 때문이었다.

“제 행복을 위한 버킷리스트는 바로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집에 서재가 있기는 하지만 늘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는 어려웠거든요. 제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곳은 그냥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에요.”

하얀 격자무늬 현관문이 인상적인 그녀만의 공간은, 이제 막 바닥 예폭시 공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로마네스크를 연상시키는 벽 인테리어와 부드러운 햇살이 인상적이었다. 이 공간에서 앞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그녀가 짐짓 부러워졌다.

행복을 위한 그녀의 두 번째 계획은 바로 '두려움 없애기'이다.

“제가 싫어하는 게 영수증 정리나 세금 납부 등과 같은 일이에요. 가끔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소위 '멘붕'에 빠지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제 목표예요.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세상으로 떠나는 걸 요즘 들어 자주 겪게 되는데, 어쩌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것이 두렵지 않도록 아이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충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어쩌면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인 셈이죠.”

행복을 위한 3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평소 매운 음식과 단 음식, 커피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좋아하는 그녀는 서서히 건강식으로 입맛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조은숙 씨는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과거 장애우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한 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들이 부족해서 때문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 제 행복을 위한 버킷리스트는 바로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최근 그 꿈을 이뤘는데 그곳은 그냥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에요. ”

자기만의 꽃길을 만들어 가길

딸 부자인 조은숙 씨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철학도 명확하다. 여배우 엄마와 천사 같이 예쁜 딸 셋의 이미지는 아이들을 곱게만 양육시킬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었지만 그녀의 얘기는 전혀 달랐다.

“저는 아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학원은 영어만 하나 보내고 있어요. 첫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를 통해 사회의 료를 알아가라고 보낸 것이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뒷바라지할 자신도 없구요. 우리 엄마가 저를 키웠듯이 옛날의 환경이 아이 교육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꽃길이지 아닌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갈밭도 건너다 개똥도 만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만의 꽃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행복이란 잘 깔아놓은 비단길이 아닌, '자기만의 꽃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행복의 시작일 것이다. 행복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은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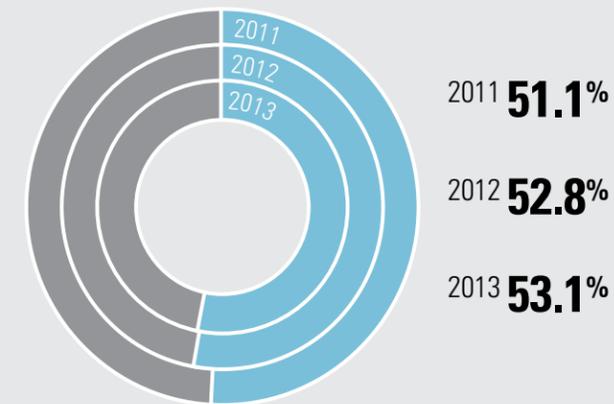
우리나라 노인 빈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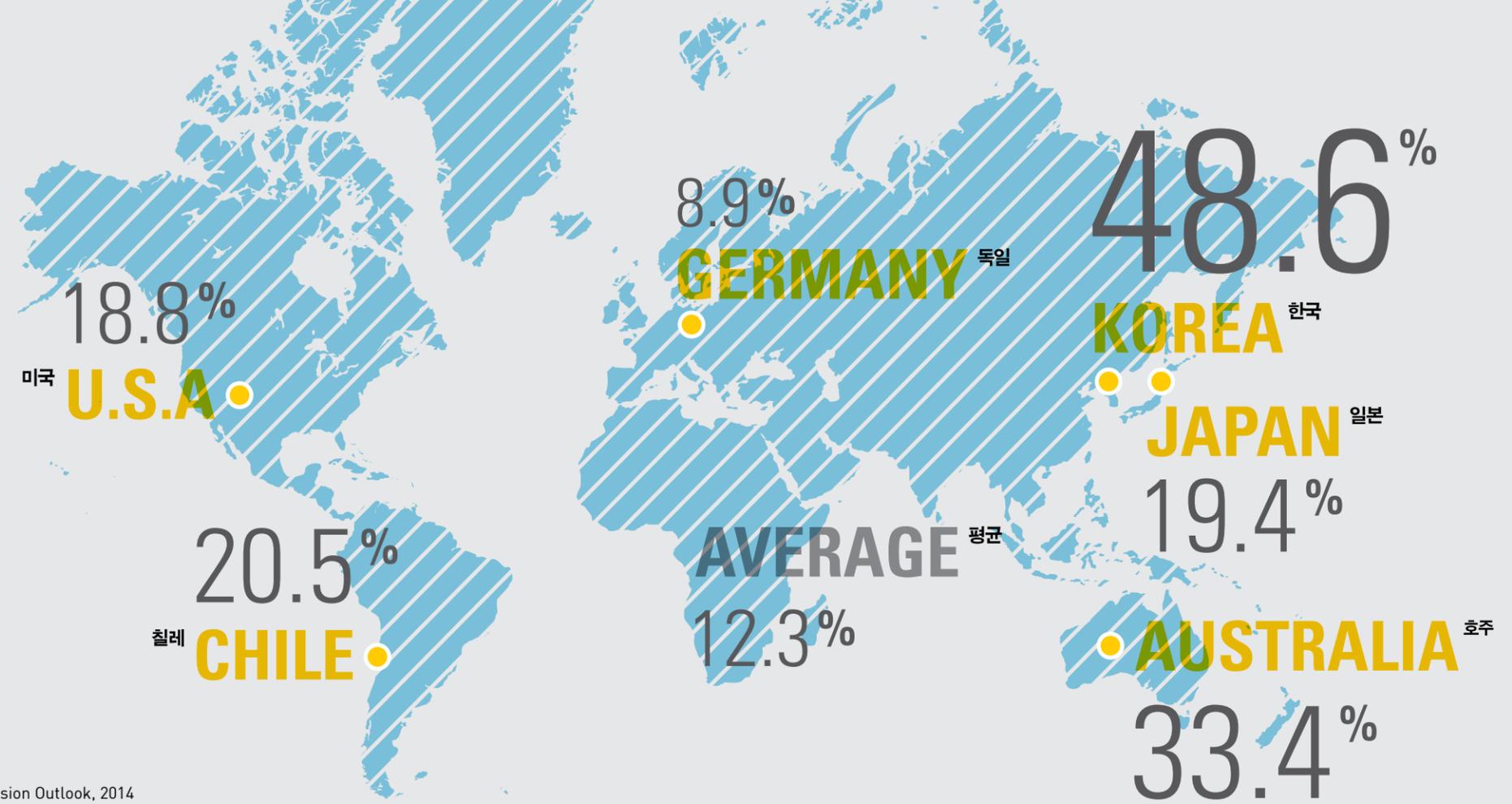
우리나라 고령층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은퇴연령 가구의 빈곤율도 최근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치밀한 미래설계가 필요하다.

OECD 빈곤율

우리나라 은퇴연령층 가구 빈곤율 (가구주 연령 66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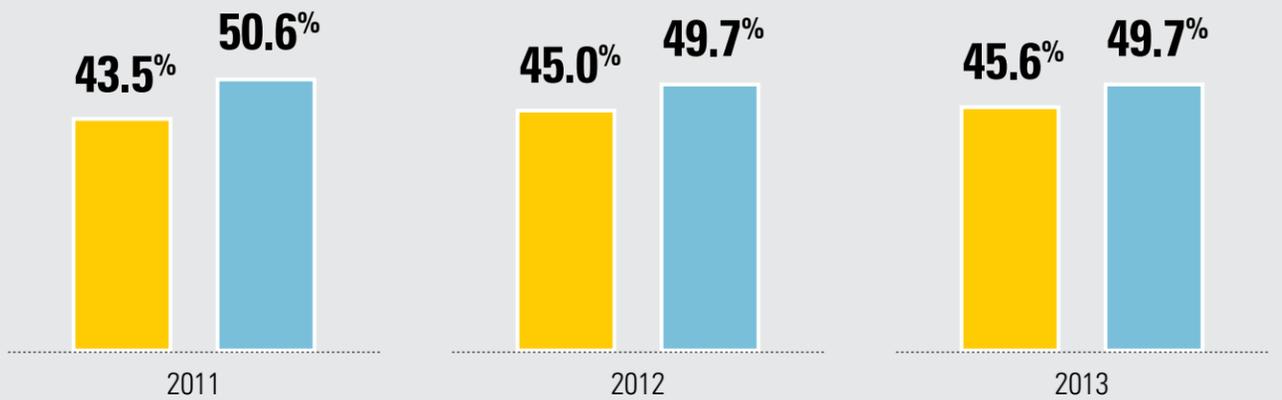


주 : 65세 이상 기준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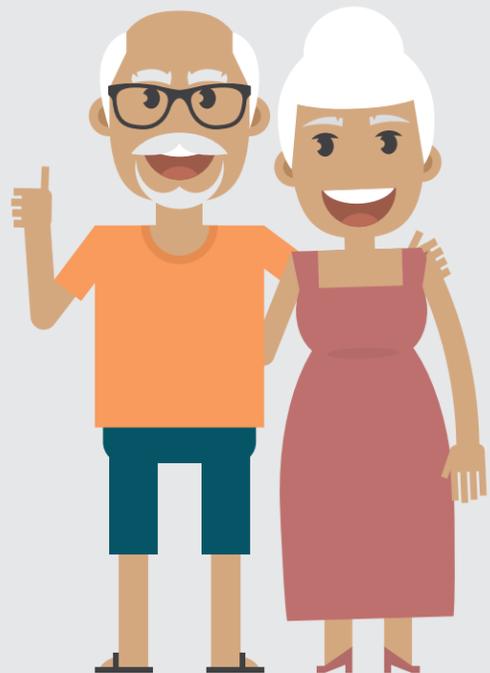


자료 : OECD Pension Outlook, 2014

개인특성별 은퇴연령층 빈곤율 (연령 66세 이상 개인)



주 : 연령이 66세 이상,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갭은 중위소득 50%와 빈곤층의 평균소득 차이의 정도
자료 : 통계청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로 노후설계 든.든.히.

전자부품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H씨(48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현재의 빠듯한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H씨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현재 월평균 500만원 소득으로

빠듯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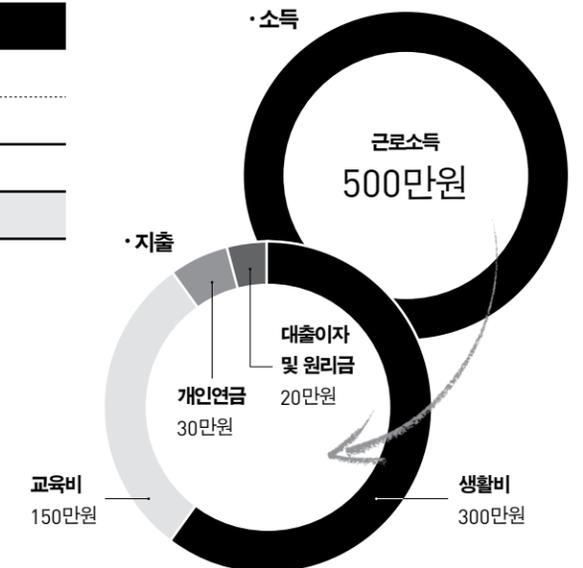
평범한 직장인 H씨는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 앞으로 지출될 두 자녀의 학자금, 결혼 비용 등 큼직한 용처를 생각하면 노후 미래 설계는 언감생심 남의 일 같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만 더할 뿐이다.

현재 H씨의 자산·부채현황을 보면 순자산이 3억2,000만원(총 자산 3억7,000만원, 총부채 5,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산은 아파트 3억2,000만원, 토지 3,000만원, 예·적금 1,000만원, 일반연금보험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3,000만원, 본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2,000만원이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월평균 500만원의 수입이 있다. 반면 지출은 생활비 300만원, 자녀교육비 150만원, 개인연금 저축액 30만원, 대출 원리금상환 20만원으로 별도의 저축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3억 2,000만 원
토지	3,000만 원
예·적금	1,000만 원
보험	1,000만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3,000만 원
마이너스대출	2,000만 원
순자산	3억 2,000만 원



노후 생활비로 월 240만원 원하나

현재 준비로는 턱없이 부족

H씨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할 거라 생각하고 은퇴 후 노후생활을 대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월 11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연금은 월 25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전부터 개인연금에 월 30만원씩 납입해 오고 있어 60세까지 총 납입액과 이자를 월별 연금 형태로 변환하면 매월 약 58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으로 노후에 조달 할 수 있는 생활비는 월 193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H씨는 현재의 생활을 감안할 경우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은퇴 후 월 240만원 정도를 희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등을 감안할 때 H씨의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월 323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의 노후설계 하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월 13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곧 대학에 들어갈 두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비용으로 추산되는 2억 5,000만원(학자금 1억원, 결혼비용 1억5,000만원)의 추가 지출을 생각하면 현재 노후준비 상황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향후 H씨는 은퇴 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월 130만원의 생활비용을 마련하고, 두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비용을 위한 2억5,000만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노후에 대한 미래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를 통한 적극적 운용,

주택연금 활용 등이 필요

H씨는 먼저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본인의 기존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60세에 중신 정액형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시가 1억원 당 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H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가 3억2,000만원이므로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H씨는 60세부터 월 73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3,000만원을 매각하고, 기존의 예·적금 1,000만원을 통합해 금융자산으로 운용 가능한 자산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금융자산 4,000만원은 H씨의 경우 현재 부족한 준비상황을 감안하면 '표준투자형'이나 '수익추구형'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운용할 경우 은퇴시점에 8,000~1억1,000만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 번째로는 지출흐름의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저축으로 금융자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고등학생 자녀들의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월 150만원의 지출을 자녀의 대학진학 후 30만원으로 줄이고, 120만원을 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결혼자금의 마련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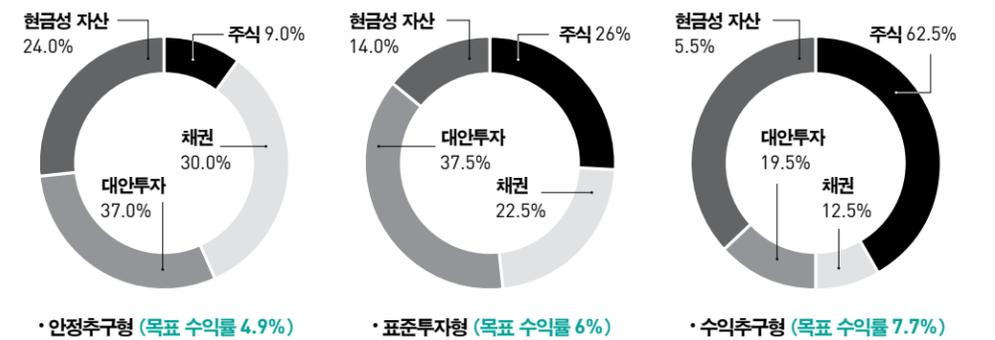
저축의 운용은 대학 학자금과 결혼자금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과 대안투자 중심의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운용할 경우 은퇴시점기준으로 1억9,000만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 대학 학자금과 결혼자금의 76%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미래설계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은퇴 후 연금 마련

을 위해서는 추가 소득의 창출이나 생활비 절감을 통한 저축이 필요해 보인다. 추가적으로 저축이 필요한 규모는 월 60~70만원 정도다. 그리고 이들 저축액은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해 저축시 세제혜택이 부여될뿐 아니라 노후 연금수급시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해 세금효과를 최대한 활용한 운용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H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총 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H씨가 소득이 있고, 부채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관리가능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20만원으로 대출 원리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주 : 하나대투증권에서는 '투자이야기'를 통해 매월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 이야기", 2015.01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은퇴까지 남은 12년으로 노후 미래설계 충분할 듯

H씨는 현재 은퇴 후 필요 생활비 준비, 자녀 대학 등록금 및 결혼비용에 대한 대비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 은퇴 시기까지 12년 정도가 남은 만큼 준비 기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를 통한 투자 가능한 금융자산 확대 및 운용, 보유 아파트의 주택연금 활용, 자녀 대학진학 후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의 조정을 통한 저축 확대, 추가 소득의 창출이나 생활비 절감에 의한 사적연금 추가 가입 등 미래설계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씨의 노후 미래설계 방향

• 미래설계 부족 상황	노후 월 130만원 생활비 부족, 자녀 학자금 및 결혼비용 준비 필요
• 미래설계 방향	토지 매각 등을 통한 금융자산확대 후 표준투자형 또는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운용
	아파트의 주택연금 활용 요구
	자녀 대학진학 후 교육비 지출의 120만원 저축 전환 및 안정 추구형 운용
	추가 소득창출이나 생활비의 절감을 통한 60~70만원의 사적연금 추가 가입 필요

2008
2011
2014



국가 간 글로벌 공조 VS 국가 별 해외재산

국가 간 역외탈세 공조대응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이래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세무 당국 간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었다. 2009년도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였고, 한국은 아시아권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영미권의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탈세정보 교환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에 가입했으며, 2013년 5월에는 가입국 간에 조세피난처 내의 탈세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과세한 사례가 존재한다.

2011년에 들어와서는 한국과 미국 국세청은 자국에 맞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4년 4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정보교환이 발효되었다. 2015년 9월 말까지 한국 금융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일정 금액 이상의 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미국 내의 한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도 상호교환 차원에서 한국 국세청이 수령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에는 여러 국가가 다자 간 조세행정에 대한 공조협약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징수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으로 별도의 조세 조약이나 정보 교환협정 없이도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기획재정부 2014.2.27일 보도자료 근거) 하였다.

그 후속 대책으로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하여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내역 그리고 관련 금융기관 정보(Common Reporting Standard, CRS)를 교환하자는 내용이다. 교환할 대상 계좌는 개인인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교환하는 것이며, 법인일 경우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이상 계좌부터 교환하며, 신규 계좌는 금액에 관계없이 교환하자는 내용(기획재정부 2014.10.30일 보도자료 근거)이 주요 골자이다.

주요 국가 해외재산 신고제도

과거에는 자국민의 정보를 타국에 제공하는 것을 '주권의 침해' 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글로벌 조세정보를 공유하여 역외탈세를 막아 내겠다는 의미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공조' 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에 있는 해외재산 신고제도를 살펴보자. 통상 자국법상의 국가(A국)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타국(B국)에 보유/발생하는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A국에 소득을 합산하고 재산을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2014년 신고 분부터는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매월 말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013년 신고 분까지는 매일 기준으로 현금과 상장주식 합계금액으로 신고를 했었다.

미국은 해외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2곳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전 세계 금융소득이 \$10,000을 초과하면 그 다음연도 6월말까지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신고를 FinCen form 114(전자신고)로 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 거주하는 납세자일 경우 연도 말 기준 \$50,000(연중 최고잔액 \$75,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신고를 그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와 함께 form8938을 신고해야 한다.

캐나다는 2001년도 홍콩 반환 이후 홍콩 이민자를 과세할 목적으로 해외재산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포함하여 연간 \$10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4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T1135 Form)와 함께 해야 한다.

일본은 해외재산 조사제도를 2013년에 도입하여 2014년 3월 15일에 최초 신고를 받았으며, 해외재산 평가액이 5천만엔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복지라는 과제 앞에서 나라 살림살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정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세수입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에는 한국 국세청이 해외 국가에 존재하는 과세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의 회색지대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공조체계가 확대된 시점에 국세청의 지난 5년동안 해외의 조세정보를 얻어내려는 노력은 대단한 수준이었다. 결국 해외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국내로 쉽게 반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생긴다.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보고자	자국법 거주자	자국법 거주자	자국법 거주자	자국법 거주자
보고재산	금융재산	금융재산	모든 재산	모든 재산
대상 금액	10억원	5만불	10만불	5천만엔
보고시기	6월 말까지	4월15일까지 (6월 말 까지)	4월 말까지	3월15일까지

세금용어사전

01. 국제탈세정보 교환센터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
조세피난처 자금거래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 간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조세회피기법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2004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4개국을 중심으로 발족했다.

02. 조세피난처

법인세, 개인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하여 세제 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말한다. 세금부과 정도에 따라,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eaven으로 분류된다.

03.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국가간 세금징수와 관련한 협조를 위해 맺는 협약으로, 이 협약에 가입하면 국가간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를 위한 월급통장, 연금수급통장

연금수급통장은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각종 연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이다. 연금수급통장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들 베이비부머들을 유치하기 위해 출시되기 시작한 고령자 특화 금융 상품이다.

연금수급통장은 연금수급자가 연금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정하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월급통장'에 부여된 각종 혜택을 제공해 주는 상품으로서 주요 혜택으로는 이체 수수료, ATM 출금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우대 금리 적용, 무료 보험 가입 등을 들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연금 수령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할 때 주거래 고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있으며, 고객 입장에서 퇴직 후 월급통장이 없어도 각종 수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국내에서 연금수급통장과 유사한 상품으로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이 출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앞서 살펴본 연금통장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연금통장은 모든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연금통장은 월 수령액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는 반면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월 150만원까지만 해당 통장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약정에 있어서도 연금통장은 약정이 가능한 반면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최근 사학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연금수급통장이 출시되었다. 사학연금수급통장은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한 상품으로 국민연금안심통장과 유사하게 매월 150만원 한도로 연금 입금이 가능하고, 연금 입금 외 다른 입금은 불가하며 압류가 금지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자들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수시입출금 통장을 적극 활용하되 본인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상품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자 전용 수시입출금통장 특징 비교

	연금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가입대상	모든 종류의 연금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수령한도	없음	월150만원 한도
통장대출 한도 약정	가능	불가능
압류대상 적용 여부	적용	비적용
공통점	각종 혜택 제공 - 우대 금리 적용 (일반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 +α) - 수수료 면제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수수료, ATM 이용 수수료 등)	



인터뷰. 장세균 한수원 부장

‘자기만의 세계’를 인생 2막의 꿈으로 키우다

우리네 주변의 평범한 이웃 장세균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은 ‘낀세대’로서의 삶을 걸어왔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은퇴 후 삶은 최소한의 품위유지비와 함께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풍요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흔히 ‘낀세대’로 불리는 50대. 이들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다. 소수의 잘 나가는 계층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은 녹록치 않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고, 한창 일할 나이에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내해야 한다. 게다가 이 시기가 자녀교육이나 결혼 등으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이기에 퇴직을 앞둔 이들이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한다. 자녀 교육비 대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언급생심 준비할 겨를도 없었을뿐더러 설상가상으로 취업난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들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할 판이다. 더구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하니 50대 세대를 자조적으로 ‘샌드위치 세대’나 ‘쉬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기업을 근무하며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평범한 50대, 장세균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취미든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가족, 체력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다

그는 등산 마니아다. 백두대간 어느 산이든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산을 올라봤다. 전북 임실 박사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산과 자연은 말 그대로 ‘벗’과 다름없었다.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아마 1996년부터였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그렇고 어렸을 때 보아왔던 자연이 그리워 등산을 시작했죠. 산을 오르다보면 다양한 동물이나 식물, 곤충과 나무를 접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공부라 되더라고요.” 모르는 것은 동물도감이나 인터넷을 찾아가며 익히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도 했다.

자연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많다보니 야생화나 산나물, 특히 버섯 등에 관심이 많다. 뭐 하나 허투루 보는 법이 없어서인지 산에 오르다보면 어느 지형에 어떤 야생화와 산나물이 많은지 척 보면 알 정도로 고수가 됐다. 자연을 워낙 좋아해서인지 그 모든 활동이 그에게는 하나의 ‘놀이’처럼 흥미롭다. “산이나 숲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 숲해설사나 문화해설사로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더군요. 물론 숲해설사의 경우 만만치 않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 2막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더라도 그는 오래전부터 습지교육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

‘자기만의 세계’를 찾다

“저희 나이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 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취미든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가족, 체력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가운데 특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과 체력 관리는 단시간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특별한 취미생활이 없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으며 은퇴 후 무미건조한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스스로 즐길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하죠. 그 일이 은퇴 후 제2의 업이 된다면 더 좋고요. ‘자기만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는 평소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세균 부장은 체력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 50대이지만 ‘식스팩’이 있을 정도로 웨이트트레이닝도 열심이다. 그가 몇날 며칠 산을 타고도 여전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다져놓은 체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은퇴 준비는 장기적일수록 좋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한편으로는 은퇴 후 삶이 기대가 된다는 그에게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둘째가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아들 두 놈들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시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우리 부부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의 미래 또한 너희들이 알아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올인 하지만 않아도 노후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특별한 부자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하지 않아도 은퇴 후 삶에 대한 여유가 느껴지는 것은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밟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 준비는 장기 플랜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0대지만 50대부터는 늦어요. 늦어도 40대가 시작되면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준비하면 더 좋고요.” 평범한 50대 아저씨의 조언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바로 눈앞에 닥친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불끈! 울끈! 생활 속 근육 리시피

일상 속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근육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은 젊고 건강해질 수 있다.
쉽게 따라하는 생활 속 소소한 근육 운동법을 소개한다.

자전거, 조깅, 마라톤, 등산, 요가 등 근력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양한 운동법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선택하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TV를 보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머리를 감으면서도 탄탄한 근육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다.

근육은 종일 자극을 원한다

근육 만들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극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몸이 근육을 생산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근육 만드는 생활습관에 도전해보자.

낮시간을 이용해 낮잠을 자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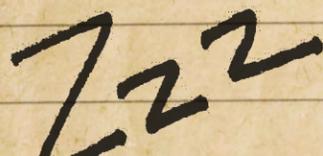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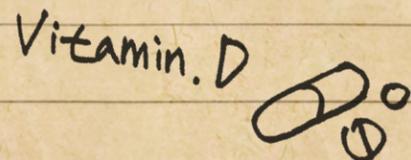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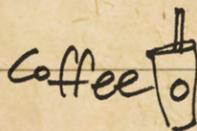
수면의학박사 크리스토퍼 윈터에 따르면, 인간은 낮잠을 자는 동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적게 나오고 근육을 불리는 호르몬은 많이 나온다고 한다. 15분 정도의 낮잠은 근육을 잘 붙고 지방은 잘 빠지는 상태로 몸의 시스템이 정착된다.

운동 전 커피 마시기도 근육만들기에 도움이 된다.

‘근력 컨디션 연구 저널’은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커피 두 잔을 마시면 더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카페인이 근육의 피로와 통증 신호를 뇌로 가지 못하게 차단한다. 단 커피의 양은 몸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D도 꼭 챙기자.

비타민D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력이 더 좋다. 비타민D가 호르몬으로 작용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비타민D를 600m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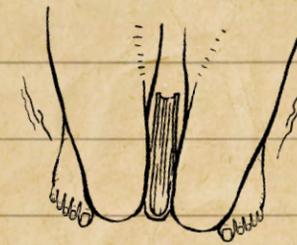


생활 속 아주 쉬운 근육 운동법 따라잡기

#01

TV볼 때 책고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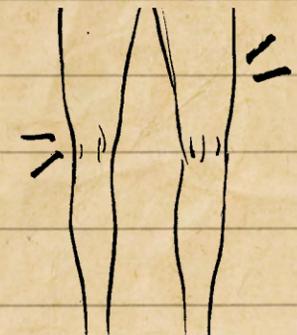
TV를 볼 때 의자 끝 부분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허벅지 사이에 5cm정도의 두꺼운 책 등을 끼우고 떨어뜨리지 않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 키우기에 도움이 된다



#03

머리 감을 때 다리 굽히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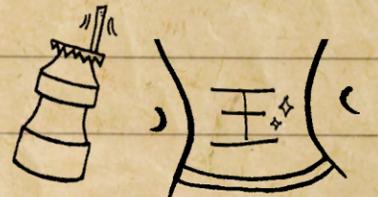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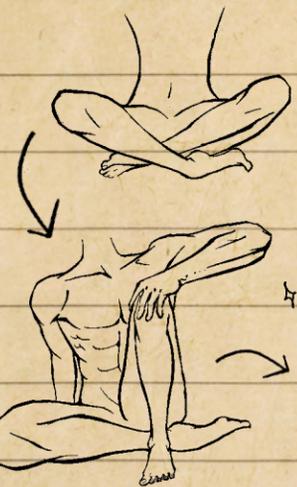
머리를 감을 때 샤워기를 향해 머리를 숙여서 감는다면 어깨너비만큼 다리를 벌려 굽히지 않고 머리를 감아보자. 의식적으로 허벅지로 버틴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육을 자극시키면 예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다.



#05

앉았다 일어서기

왼쪽 다리가 위에 오도록해 양반다리 자세로 앉는다. 오른쪽 무릎을 세운 다음 오른손은 옆을 짚고 왼손은 뒤를 짚는다. 몸을 90도를 면서 양손을 무릎 앞에 놓는다. 발끝을 세우고 머리를 숙이면서 무릎 한쪽을 세워 그대로 일어난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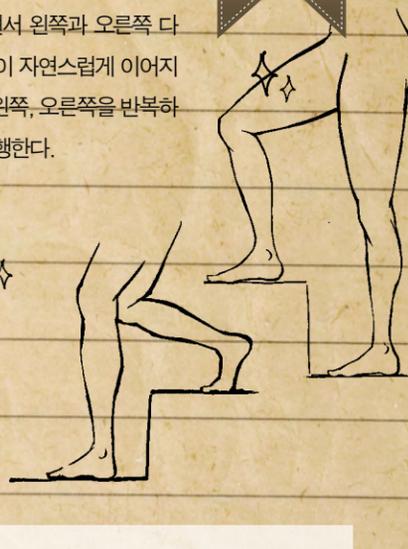
빨대로 복근만들기

하루에 한번씩 5초 동안 다섯 번 요구르트용 작은 빨대로 숨을 들이 마시면 코르셋 역할을 하는 복횡근의 긴장도가 높아져 굴곡없는 복부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04

계단 오르내리기

오른쪽 다리를 윗간에 올려놓으며 체중을 오른쪽 다리에 싣는다. 이때 왼쪽 무릎 관절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서 왼쪽과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것. 왼쪽, 오른쪽을 반복하며, 10회 진행한다.



tip.

근육을 키우는 슈퍼푸드

근육키우기에는 몸의 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식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근육 운동효과를 200% 증폭시키는 슈퍼푸드를 공개한다.

- 해물** 새조개는 근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비타민B와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타우린 함량이 풍부해 운동 후 근육회복에 탁월하다. 운동 시 동작을 재빠르게 바꾸거나 방향 전환이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약해졌다는 증거. 민첩성을 키우는 '낙지'도 적극 추천한다.
- 닭고기** 닭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모두 들어있어 약해진 기력을 되찾아준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해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준다.
- 삼치** 등푸른 생선 삼치는 고단백 식품. 기초대사에서 소모된 근육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주고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혼자있는 시간,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로 살지 못하면 함께 살 수도 없다’는 말처럼 진정한 나로 바로 설 때 비로소 함께 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법.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한 용감한 도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법칙을 소개한다.

법칙1. 적극적인 고독 활동을 즐겨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적극적인 고독 활동’을 추천한다. 적극적인 고독 활동으로 달리기, 헬스, 등산에 도전해 보자. 혼자만의 달리기, 헬스, 등산은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마라톤 대회 등 몰입에 도움이 되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추천한다. 몰입해 달리다보면 어느새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정한 나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법칙2. 나만의 작은 파워스팟 만들기

파워스팟(Power Spot)이란 나만의 에너지 충전소를 말한다. 일부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집 앞 조용한 카페, 공공시설의 인터넷 공간, 서점, 도서관, 집안 거실 등 5곳 정도를 파워스팟으로 정해놓고 평소 골고루 활용하면 좋다.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장소를 미리 두세 군데 정해 활용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감’이 훨씬 높아진다. 만약 집안을 파워스팟으로 만들고 싶다면 원하는 곳에 색다른 인테리어로 기분이 좋아지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칙3. 나 자신과의 대화 기록하기

머릿속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일기쓰기에 도전해보자. 단, 한번 시작하면 21일 동안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 행동이 하나의 습관이 되려면 21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와의 일일대화는 머리를 맑게 하고 바람 잘날 없는 정신을 차분하게 해준다. 흥미롭게도 시간이 지나면 공책의 페이지 하나가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법칙4. 소울푸드로 영혼을 채워라

혼을 담아 요리한, 맛이 풍부한 음식인 소울푸드(Soul Food)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 과거 어릴 적 먹던 음식이나 추억의 장소도 좋고, 어디서나 만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레스토랑의 음식이어도 좋다. 이러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직접 소울 푸드를 요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 지친 미각과 곤두선 영혼을 달래보자.



TIP

본성에 충실한 시간 설계법

흙 | 흙의 성향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생각할 때 주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유형이다. 따라서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재에 나만을 위한 1인용 소파를 놓거나, 거실 한 칸에 흔들의자를 두고 아지트를 구축해도 좋다.
나무 | 나무 성향의 사람은 운동이나 하이킹, 달리기처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사람은 자연을 벗 삼아 하루 종일 도보 여행을 하거나, 바다를 끼고 해변을 산책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불 | 불의 성향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신나는 곳에서 파티를 하거나 예술 행위와 같은 창조적인 일을 좋아한다.
금속 | 금속 성향의 사람은 퍼즐 맞추는 일에서 자기만족과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완성의 쾌감을 맛볼 수 있는 무언가에 몰두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물 | 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이벤트란 편안히 누워 마사지를 받거나 긴 의자에 누워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것이다.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다.

출처 <킨포크 1호>



증여·상속에 대한 의식 조사와 시사점

최근 웰다잉(Well-dying)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이 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주어진 자기 삶을 좀 더 값지게 만드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웰다잉에 도움이 될 만한 '증여·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국내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0.2%에서 2060년 40.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가 바로 '상속'이다.

사업체 운영, 직장 생활 등의 경제활동으로 자산을 일구거나, 선대로부터의 상속·증여로 부를 축적하는 등 개인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죽음과 함께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겪게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서상 생전에 '유언', '상속'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또 죽음을 대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상속문제에 대한 연구나 금융회사의 업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상속 관련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약 2만3,000여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3만2,000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속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이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생전에 잘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시행된 '증여·상속 관련 인식 조사'는 증여·상속 등 자산승계와 관련한 승계 대상, 시기, 방법, 형태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 입장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이뤄졌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진행한 이번 서베이의 응답자는 보유자산(부동산 포함) 5억원 이상, 만 40세 이상의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58.2세, 평균 자산은 9.9억원(중앙값 7.9억원)이다.

증여 및 상속 준비 필요성 '대다수가 공감' 구체적인 준비 '크게 부족'

우선 증여 및 상속준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10점 만점에 평균 7점으로 나타나 증여 및 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 정도에 대해서는 약 12%만이 평소 생각을 해봤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 준비정도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할수록, 그리고 보유 자산규모가 클수록, 상속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수록 상속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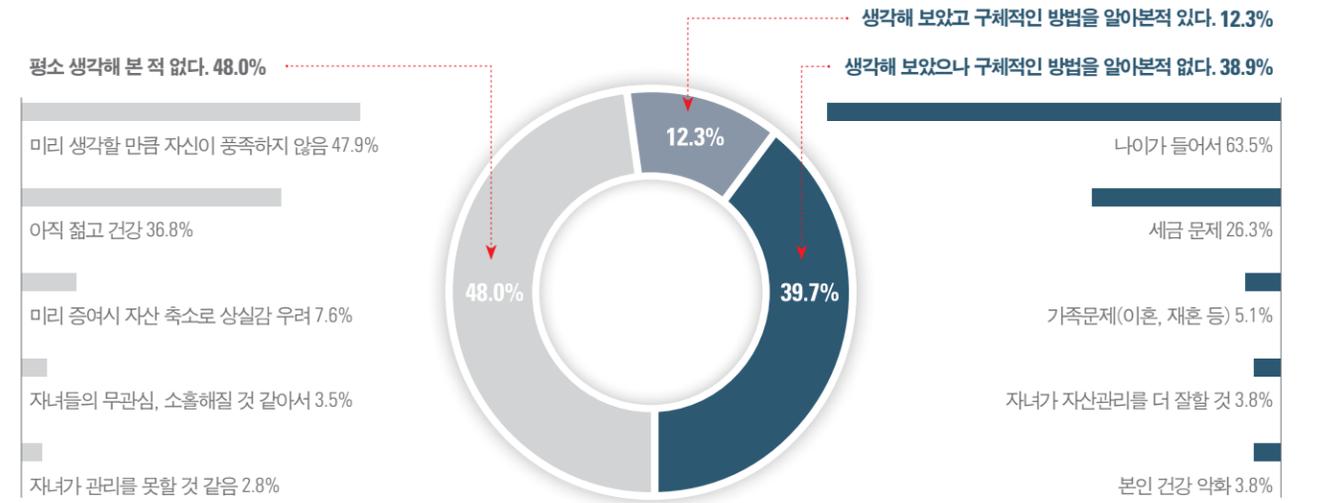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로는 '나이가 들어서'를 1순위로 꼽은 비중이 63.5%로 압도적이었다. 그 외 세금 문제, 가족 문제(이혼, 재혼 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고연령 자산가들이 상속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특히 이혼, 재혼 등의 경험을 한 응답자들이 상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상속보다는 노후 자산보유가 '더 든든'

그렇다면 대다수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준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48%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 약 48%가 '미리 생각할 만큼 자산이 풍족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했고, 약 37%의 응답자는 '상속을 생각하기에 아직 젊고 건강'이라고 대답해 현재의 상황이 상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만큼 증여 및 상속이란 주제가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약 11%의 응답자는 본인이 자산을 미리 증여함에 따른 자산 축소로 인한 상실감, 재산을 미리 받은 자녀들의 무관심 등의 불안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산승계를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는데다, 자산을 조금이나마 보유하고 있어야 든든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승계 대상은 자녀와 배우자가 대부분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상속 대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대부분이고, 이 밖에 형제·자매, 기부 등 기타 대상은 거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대상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증여 및 상속 대상 자산으로는 부동산이 81%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구조와 유사해 자산승계를 앞두고 추가적인 자산 구조의 전환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동산을 상속 자산으로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생전 마지막까지 보유하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승계 시기 '일부증여·일부상속' 가장 선호

자산의 승계 시기로는 '일부증여·일부상속'을 선택한 비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전부 사후 상속'을 선택한 응답자도 40.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부 생전 증여'를 선택한 응답자는 1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증여·일부상속'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평균 자산이 그 외 응답자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녀의 경제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중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용 절감(절세)'을 선택한 비중도 3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는 보유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절세를 위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증여를 시작하고, 생전 유언을 통해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등 자산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고객층으로 분류 가능하다. '전부 사후 상속'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평균 자산이 그 외 응답자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스스로 노후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라고 응답한 비중도 40.8%로 높게 나타나 이들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건강 및 자산 규모 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관심 저하 우려 등으로 인해 전부 상속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 생전 증여 14.0%	일부 증여·일부 상속 46.0%	전부 사후 상속 40.0%
주요 특징	평균연령 58.0세 평균자산 10.4억 건강양호 83.3%	평균연령 56.6세 평균자산 10.7억 건강양호 73.9%	평균연령 60.0세 평균자산 8.7억 건강양호 68.3%
증여 시점	74.1세	69.2세	-
선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절감(절세 등) 40.5% 자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31.0% 상속 후 분쟁이 생길것을 염려해서 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45.7% 비용 절감(절세 등) 33.3% 자산관리 능력에 따라 상속을 확정하기 위해 10.9% 자산관리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노후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 43.3% 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 40.8% 자녀의 근로의욕 저하 우려 11.7% 증여세 등 관련 비용 문제 3.3% 금액이 크지 않아서 0.8%
노후 계획 및 상속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자산(연금 등)수익 45.2% 부동산 수익 26.2% 근로 및 사업소득 16.7% 자녀도움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언장 작성 68.1% 사망 시점 유언(유언장작성X) 26.2% 유언신탁상품활용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시점 유언(유언장작성X) 60.8% 유언장 작성 37.5% 유언신탁상품활용 0.8%



증여나 상속시 세법에 관한 인식 수준

세제 관련 낮은 지식수준으로 전문가 조언 필요

증여나 상속 시 세제에 관한 인식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어, 세제와 관련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상적으로 자산승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70대 이상의 응답자들도 구체적인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 절세 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인식수준과 관련해 응답자별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보유 자산규모 수준이다. 10억원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응답자의 세제 인식 수준이 그렇지 못한 경우 보다 훨씬 높아 자산규모에 따라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유층일수록 절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승계 상담, 금융사보다는 세무사 등 전문가 선호

증여 또는 상속 관련 상담 받기를 원하는 전문가 집단으로는 세무사·회계사를 선택한 비중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변호사가 38.0%, 금융회사가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장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 같아서' 세무사·회계사, 변호사를 선택했으며 금융회사는 기존 거래 직원 보유, 다른 연계 서비스 등이 다른 전문가 집단 대비 강점으로 꼽혔다. 향후 금융회사는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해당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란 기대가 있으나,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단점으로 여겨지는 사항들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증여 및 상속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객들의 실천노력과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필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증여 및 상속의 자산승계에 대한 중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 보유 자산의 규모별, 현재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건강, 가족문제 등) 등에 따라 일부는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웰다잉(Well-dying)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은퇴 이후 노후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리 잡긴 했지만 여전히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고객들의 니즈를 먼저 반영해 증여와 관련한 연금 및 보험 상품이나 상속과 관련한 유언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일반 고객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특히 금융회사도 변호사,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는 물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홍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은 향후 금융회사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양한 금융의 기능 중 맞춤형 자산관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는 자산승계와 관련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고객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기여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은퇴 버킷리스트 최우선 순위 'IRP 가입'

행복한 노후 보내기는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려운 숙제.

최근 노후 준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희망 가득한 노후 준비의 첫발을 내딛어보자.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번쯤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고 희망찬 다짐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와 다짐들은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게 마련이다.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고 다짐하는 일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 계획에는 노후 준비 항목을 넣어 설계할 것을 추천한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 시금

최근 국내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주요 선진국대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후 준비 부족, 사회안전망 부실 등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노후 빈곤이 OECD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추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 300만원 추가 세제혜택 부여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퇴직연금 계좌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로 나뉘져 있다. 그리고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가입하는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 계좌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개정 근퇴법이 시행되면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확정기여형과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노후 안정적인 소득 마련 차원에서 확정기여형을 포함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1,2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다. 추가 적립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IRP, 저금리 상황에서 더 매력적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상황을 보면,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9월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와 금액은 각각 136만8,000명, 7조2,000억원 수준이다. 가입자 수는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8.9%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말 131만4,000명 대비 4.1%증가했지만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른 추가 세제혜택 부여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경제 환경 하에서 이처럼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형 퇴직연금만큼 메리트가 큰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시장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지속적으로 유연화되면서 이직자들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들이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가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2017년 7월부터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의 주요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직장 이전 및 퇴직 시 퇴직연금 유지 가능 • 퇴직연금 추가 적립 및 운용 가능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700만원까지 12%세액공제 (올해 추가된 300만원 포함 및 개인연금저축과 합산 시)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 •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 가능
가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사 • 가입 시 신분증 및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필요
연금수령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55세 이상, 10년 이상 수령

퇴직연금 가입 시
누구나
IRP 가입 가능

그렇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누구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는 아쉽게도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현재 가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들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세제혜택이 힘들다. 또한 자영업자 등은 2017년 7월에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퇴직연금중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추가로 연금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만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 납입분 외에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경우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의 경우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개설 없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필요에 의해 추가납입분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직이나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개설을 통해 추가납입한 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보다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금융사에서
가입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를 찾으면 된다. 또 계좌의 개설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된 기업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 어도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금융사에서 할 수 있다.

단,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사가 현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신탁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은 추가 세제혜택 부여로 금융상품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노후를 설계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올해 새해 설 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주요 계획으로 넣고, 은퇴버킷 리스트에도 추가한 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세금 다이어트 답은?

적립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 적립IRP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W 가입효과

- 납입금액 (연간 700만원^주 한도) ×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2015 세법개정)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 (연행) 연금저축 + 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 400만원 + 퇴직연금 별도 한도 300만원

EX	구 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납입금액	0원	7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700만원	0원	400만원

주) DC근로자추가납입분 + 적립IRP납입분 + 연금저축 납입분 합산 기준

W 가입대상

- 퇴직연금 DB,DC,기업형IRP가입자
- 퇴직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 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함

W 운용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 :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외 다양한 타금융기관 상품 제공
- 집합투자상품 (수익증권) : 적립금운용위원회에서 엄선한 12개의 자산운용사의 44개 수익증권 제공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원리금보장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운용방법을 집합투자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원금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펀드를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MMF의 경우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0.5%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세제관련 사항은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hanabank.com) 또는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국내외 경제의 회고와 2015년 전망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징은 **美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신흥국의 상대적인 부진도** 이어졌다. 국내 경제는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비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으나, 2015년 이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효과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정부의

'끝장 경기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부족과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정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美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 강화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연준의 양적완화(QE)** 규모 축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소비세율 인상(5%→8%), 중국 기습 금리인하 등 다양한 이벤트에 노출되었지만 10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징은 미국산 주식, 채권, 화폐 등 **美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는 점**이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여타국 간의 경제 펀더멘털과 통화정책 차이가 두드러지고 기업 실적 개선되면서 연이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원유, 원자재, 금 등 상품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수요부진,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국제유가는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하락에 대해 감산 대신 수출가격 인하 등 '치킨게임'으로 대응함에 따라 배럴당 50달러 대까지 폭락했다. 글로벌 경제는 2·4분기 이후 고용회복 및 투자확대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이어간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었다.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독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2·4분기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아베노믹스(Abenomics)'의 기세(氣勢)가 약화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유로존 및 일본과 미국의 펀더멘털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가 간 통화정책도 차별화되고 있다. **美 중앙은행인 연준(FRB)**이 계획대로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반면, ECB와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신흥국의 상대적인 부진도** 이어졌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성장률이 추락했으며, 2013년에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났던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의 부진이 이어졌다. 중국 역시 구조조정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GDP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정책당국이 금리인하 등 미니 경기부양에 나섰다. 다만, 2013년에 금융시장 불안을 경험했던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적극적인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실행과 새로 출범한 정부의 과감한 경제개혁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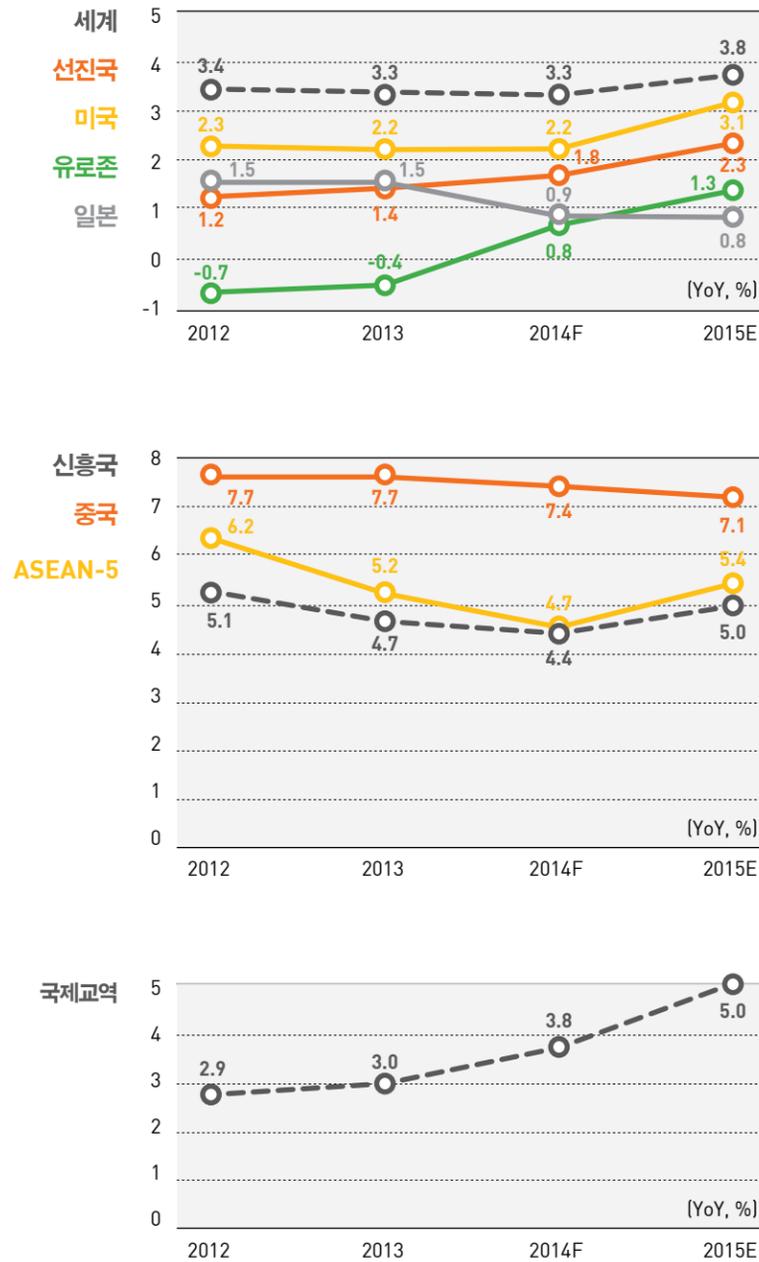
국내 경제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추모 분위기 속에 소비 및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가 급격히 냉각됐으며, 총수요 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한국은행도 정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50bp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2014년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 부문의 별다른 모멘텀이 부각되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추종했다. 외환시장은 글로벌 달러화 가치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연중반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국내 대규모 경상흑자 등 견조한 펀더멘털과 외국인 자금유입 등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며, 1,000원선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엔저 심화로 국내 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환율 관리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맞물려 1,100원 이상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채권시장은 당초 예상을 깨고 초강세를 기록했다. 시중금리는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와 저물가 상황 지속, 그리고 8월 이후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된 영향으로 장단기 구분없이 급락했다. 3년 만기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사상 최초로 2%대에 진입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 부실에 따른 신용 경계감으로 회사채 시장 내 등급별 양극화가 이어졌다.

주식시장은 2014년 1,900~2,100선(코스피 기준)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름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와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박스권 상단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업황악화와 원/엔 환율 급락 등으로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실적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한때 1,900선을 밀도기도 했다.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015년, 중국 구조조정 상황과

국내 정책효과 주목해야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징은 美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여타국에 비해 미국의 펀더멘털과 통화정책 여건이 투자에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美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는 201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여타국 간의 경기회복 속도가 이분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은 재정확대와 구조조정, 일본은 성장과 건전재정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동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전략, 그리고 글로벌 다극화 추세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5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라크, 시리아 내전은 관련 국가 또는 민족 간 갈등해결이 쉽지 않고, 해당 지역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관심거리다. 수출·투자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소비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힘입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지표가 악화되면 정책당국이 연착륙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내성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책당국이 적절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으로 중국경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정부의 '끝장 경기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부족과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정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경우 디플레이션과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디플레이 우려 해소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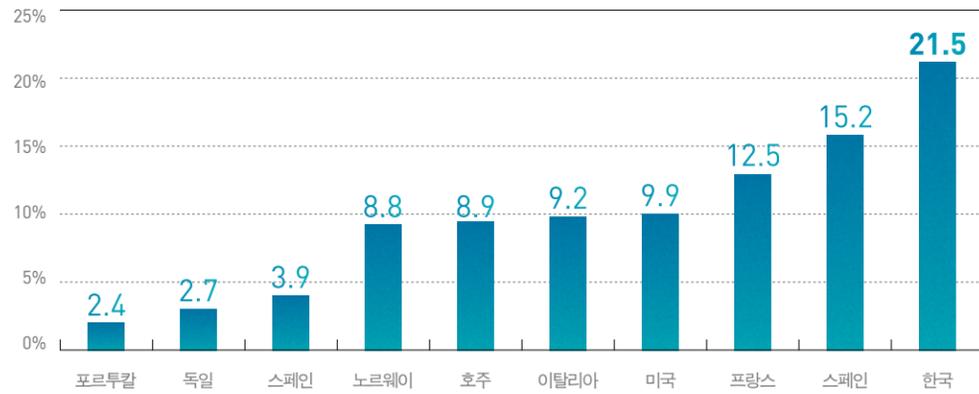


디플레이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가 1.0%를 기록하며 지난 2012년 10월 2.1%를 기록한 이후 25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GDP 디플레이터가 2분기 연속 0.0%를 기록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원리금 상환능력 비교

■ DSR
(원리금/처분가능소득)

자료 : IMF, 통계청



디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항상 짝을 이뤄 나오는 단어가 금리 인하다. 금리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해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예상치 못했던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금리 인하,
소비와 투자심리 살아날 수 있을까

한은은 3%대 중반의 성장세 기록, 2% 중반대의 기대인플레이션 수준, 수요둔화보다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원유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 요인에 기반한 물가하락 압력이 강화된 점을 감안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 고령화에 기반한 노후 부담, 주택시장 부진,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내적으로는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담배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단발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지만 수요 확대에 기반한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 및 성장세 둔화,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부진 등에 기반한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점도 한은이 새로운 물가 목표수준의 설정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 일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을 염두해 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처럼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신용등급도 이들 국가들보다 낮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임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운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턱대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의 속성을 고려할 때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화완화 정책 시행보다는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이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미 연준의 출구전략을 몇 개월 앞둔 현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성장률과 기준금리 인하의 경로를 살펴보면, 성장률 0.3%p 하락 시에 기준금리 25bp 인하를 단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 펼 경우, 현 추세의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내려 설때 제로금리를 목전에 둘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정도로 성장률이 하락하기 전에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나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한 두 차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켜 소비와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의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기반해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며 향후 통화정책의 운신 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가계부채 해결 없이
디플레 우려 해소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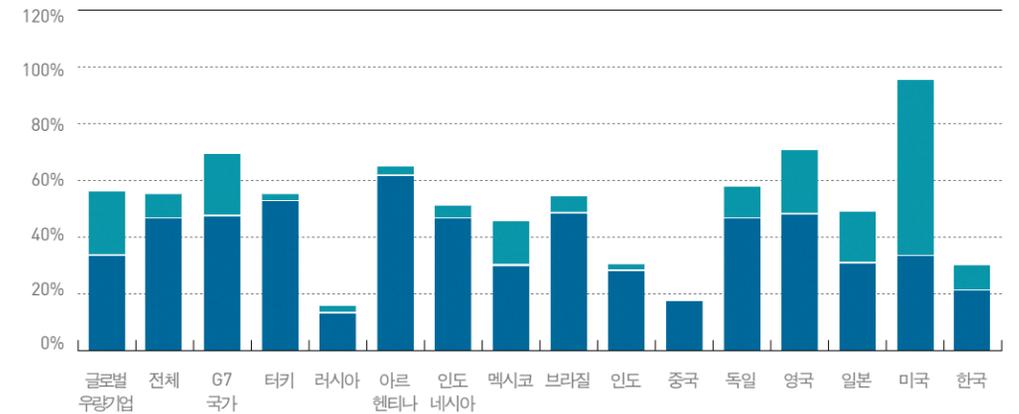
금융위기 이전 주택경기 호황과 맞물려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금순환표상의 가계금융부채 기준으로 50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나타내는 DSR은 21.5%를 기록하며 주요 OECD 국가들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배당 성향

■ 현금
■ 자사주 매입

자료 : LG경제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특히 부채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DSR을 산정한 결과는 소득 하위 60% 가구의 경우 모두 30%를 넘어(1분위 69%, 2분위 37%, 3분위 31%)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금융부채의 약 45%를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0%만이 원금분할상환을 하고 있고 시중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와 같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될 수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나 현재의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 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문제도 리파이낸싱 과정을 거치면서 원금 상환을 상당부분 지연시키고 있어 원리금상환 부담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2009년 이후부터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을 상회하며 내수 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시점은 금리 상승이나 원금 분할상환이 본격화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는 가계부문의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디플레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 증대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4,676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균 소비지출은 2,307만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부채상환, 노후 대비 등의 구조적 요인이 부각되며 가계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계소비 제약 여건들은 민간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 모멘텀을 크게 약화

시키고, 저성장 기조의 주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08~'12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연평균 1.4%에 불과해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결국 성장률을 하회하는 가계소득 증가율과 생산된 부가가치에 대한 기업과 가계 간의 재분배 문제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내부 현금성 자산 축적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창출 확대나 급여상승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가계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제 활성화 논쟁 부각과 더불어,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고 소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계층일수록 낮은 신용도로 인해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활용도가 높고, 원리금 분할상환 전환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선 대상이 되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가계 부문의 소비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좀비(Zombi)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신수종 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실효성이 불투명한 금리인하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5개 키워드로 보는 2015년 부동산 시장, “전환기에 대비해야”

2014년은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은 한 해였다.

거래량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떨떨 끊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꽃샘추위 속에서

가지개만 켜야 했다.

바닥은 벗어난 듯하지만,

바닥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2015년은 어떠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고령화라는 큰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는 가운데, 금리와 정책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쌍끌이가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2015년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5가지 키워드를 통해 올 한해 시장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부(Government)다. 2013년 4·1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시장 촉진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2014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단축, 주택금융규제(LTV, DTI) 완화,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내수 진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 정책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반면 쓸 수 있는 정책은 점차 소진되고 있다. LTV 등 주택금융규제를 더욱 완화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상속할 때 세율을 감면해주는 정도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 유지

여부가 화두

두 번째, 저금리(Interest Rate)다. 2014년 주택거래가 활황세를 보인 데에는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12년 초 5%에 이르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4년 말에는 3% 초반까지 떨어졌다. 소득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주택대출을 활용하기 쉬워지면서, 대도시 역세권 소형 아파트 등 가치 하락 우려가 적은 물건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었다. 2015년을 전망할 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상반기에는 국내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이슈였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질 하반기부터는 국내 금리가 인상 쪽으로 흐름을 바꿀 것인가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실수요(Actual Demand)다. 최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시행 시기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방침이 발표되면서 투자수요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80% 수준까지 오르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실수요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주택거래 호황을 이끌었던 전세 세입자 중심의 매매 실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첫 번째다.

또한 투자수요와 달리 실수요자는 현재 가격수준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도 가격 상승세는 약할 수 있다.

네 번째 키워드로는 양극화(Regional Divide)를 들 수 있다. 2014년 주택시장의 핫 플레이스는 대구였다.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2%에 불과했지만, 대구는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충북과 제주도 지역 호재에 힘입어 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위례와 마곡 신도시가 선방하기는 했지만, 재건축 분양시장이 냉각되는 등 비교적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광역시 내에서도 울산과 광주가 비교적 견조한 상황을 보인 반면, 부산과 대전은 부진했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일부 아파트는 2014년 한 해에만 2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부산 내에서도 입지에서 따라 분양성과가 크게 달라졌다. 시장 부진이 계속되고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비교적 우량한 상품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201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의 전환기,

시장변화에 주목해야

마지막 키워드는 수익형 부동산(Income Asset)이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몇 해 전부터 수익형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시중금리 이상의 임대수익에 매각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상가에 비할 바가 아니며,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 문제로 불안감이 높다. 수익형 부동산은 특히 금리에 민감하다. 따라서 내년 금리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

2015년은 부동산 시장의 전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이후 금리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고 2013년 이후 지속되어 온 정책 지원이 올해 썸 시장의 자체적인 회복세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반등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호조가 이어질지, 지방 주택시장을 나홀로 이끌고 있는 대구 주택시장의 활황세가 계속될지도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관찰력,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내는 판단력과 균형감각, 한 발 앞서 기회를 포착하는 행동력이 필요한 한해이다.



2014년 주택거래가 활황세를 보인 데에는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15상반기에는 국내 기준금리의 인하가능성이

이슈였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질

하반기부터는 국내 금리가 인상 쪽으로 흐름을 바꿀

것인가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FIVE.5 KEY WORD

KEYWORD.01
GOVERNMENT
정부

KEYWORD.02
INTEREST RATE
저금리

KEYWORD.03
ACTUAL DEMAND
실수요

KEYWORD.04
REGIONAL DIVIDE
양극화

KEYWORD.05
INCOME ASSET
수익형 부동산



美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준비 어떻게?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1955년 출생한 사람들)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루에 1만명이 은퇴를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 내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의 은퇴에도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CBS 뉴스는 최근 해외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람들의 수가 올해 8월 한 달 61만4,000명으로 2002년 대비 두 배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더 나은 은퇴생활을 위한 관심 증가

미국의 은퇴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지역은 미국 내에서 기후가 온화하면서 뉴욕이나 LA 등 대도시보다 생활비가 저렴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등이다. 그런데 이들 은퇴자들의 관심이 해외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여행잡지사는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연금으로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19개국을 발표했다. 기준은 생활비, 주거비, 정치체제, 오락, 의료, 안전,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일단 영어가 통하는가, 핫도그 등 보통 미국인들이 식생활이 가능한가, 그리고 매월 1,000~2,000달러의 적은 연금으로 미국에 사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은퇴생활이 가능한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선정됐다.

미국에서는 보통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나라의 이민 비자는 1년 이상 유효하고 현지에서 반드시 의료보험(월 100달러 정도)에 가입해야 한다. 중남미 지역으로 이민을 가면 매월 100달러 정도에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다. 1위는 에콰도르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ARP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은퇴지는 아시아에서는 언어적 제약이 덜한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해안 도시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벨리즈, 코스타리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파나마, 이탈리아 등이다.

현실적인 선택, '해외 은퇴'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여행을 즐기고, 과거의 은퇴 세대보다 활동적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해외 은퇴를 고려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주택, 공공요금, 교통 등 생활비가 많이 드는 나라다. 하지만 중남미나 아시아 일부 은퇴 도시는 미국에서의 생활비보다 절반 밖에 들지 않는다.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보다 생활비가 저렴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즐길 경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기 힘들며, 중남미 일부 국가는 미국의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은퇴자 전용 비자'와 함께 의료 문제를 보완해 줄 제도와 상품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고향 찾아 삼만리' 선택하는 재미동포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는 재미동포타운이 건설되고 있다. 미국 17곳에서 청약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현지 동포들의 반응이 상당하다고 한다. 재미동포타운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한 김동욱 코암인터내셔널 회장은 "재미동포타운은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고, 모국으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을 위한 대규모 정주공간을 마련해, 글로벌한 문화와 언어를 지닌 재미동포들이 모국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모국의 경제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최근 해외 은퇴자 수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CNN은 최근 해외 은퇴 전 고려해야 할 4가지라는 기사에서 '저렴한 생활비만 목적인 경우', '해외 은퇴지에서 이용할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은퇴 후 소득이 해외 은퇴자 비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해외 은퇴를 다시 생각해야 하며, 세금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비, 매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권 티켓 등 숨은 비용도 적지 않고 오랜 친구와 자주 만나기 어렵다는 등의 정서적 문제도 많다고 CBS는 지적한다. 여행 경비 등 숨은 비용이 적지 않고, 오랜 친구나 친지들과 자주 만날 수 없는 등의 정서적인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국으로의 이민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고려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은퇴이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과거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크게 다른 은퇴 세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부, 연장된 수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여행뿐 아니라 해외로의 은퇴 이민에도 관심이 높다. ”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